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2013. 4

이홍일, 박철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 건설경기 침체 수준의 분석	6
■ 건설경기 침체의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	13
■ 정책적 시사점	22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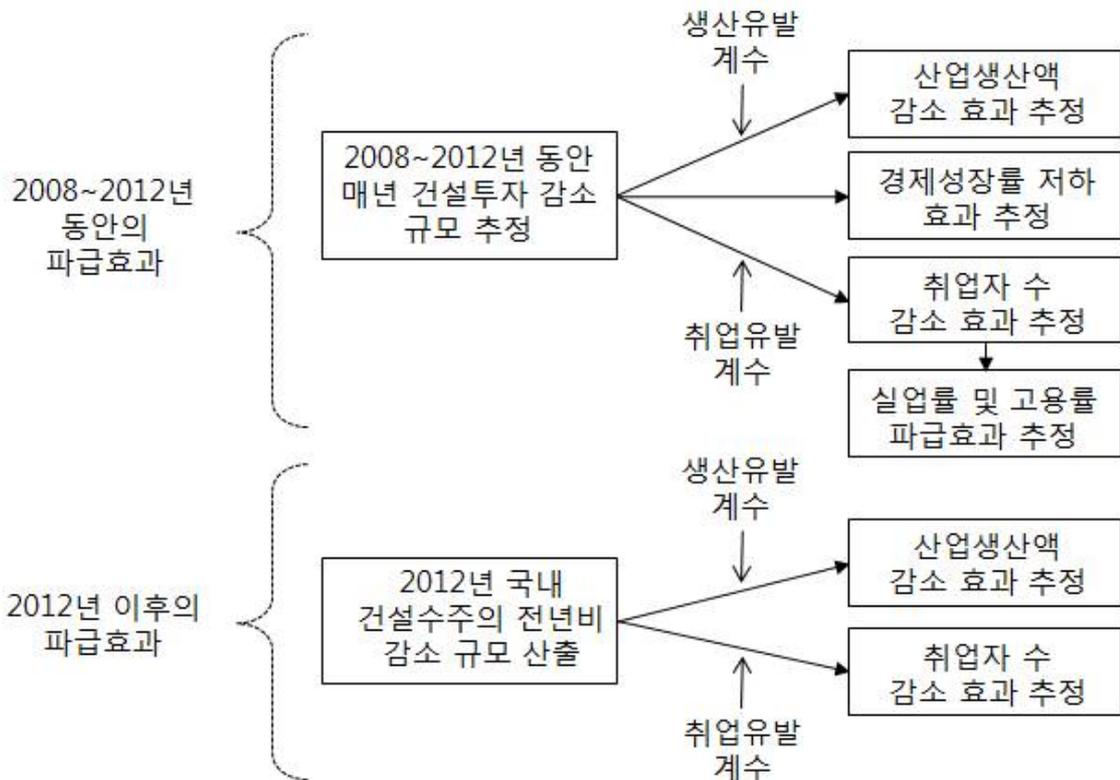
- ▶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도 지속되며 장기화됨.
 - 국내 건설 수주가 2011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
 - 건설 투자도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 지속
- ▶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함.
 - 2012년 건설 투자는 143조원(2005년 기준 불변 금액)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41.8조원에 근접
 - 2012년 국내 건설 수주도 101.5조원으로 7년 내 최저치,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10년 전 수준
- ▶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가 2005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총 37.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 규모 37.2조원은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를 유발
 -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는데,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아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p 증가한 3.2%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유발됨.
 -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이후 약 5년 동안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만 6천명의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전망이다.
- ▶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함.
 -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주택경기의 침체라는 점에서 4.1대책의 조기 입법화와 시행이 중요
 -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공부문의 투자 유지 필요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최근까지도 지속되며 장기화됨.
 - 국내 건설수주는 2011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함.
 - 건설투자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나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함.
-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고,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취업계수가 크며,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 역시 큼.
 - 따라서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는 분명 타 산업의 생산액과 고용 및 취업자 수를 상당 폭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8.3%, 금액상으로는 9.2조원이나 급락함에 따라 건설산업이 향후에도 당분간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건축 수주의 경우 통상 수주 이후 2, 3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 수주는 4, 5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됨.
 - 따라서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는 향후 약 5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와 향후에 미치게 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함.
 - 우선 건설경기 침체가 2008~2012년 동안 미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감소한 건설투자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 이 건설투자 감소 규모를 기초로 산업생산액 감소 유발 효과와 취업자 수 감

- 소 유발 효과를 추정함.
- 또한 2008~2012년 동안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경제성장률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고, 이후 취업자 수 감소 유발 효과가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추정함.
- 다음으로, 2012년 이후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2012년 국내 건설수주의 전년 대비 감소 규모를 산출하고, 이 건설수주 감소 규모를 기초로 산업생산액 감소 유발 효과와 취업자 수 감소 유발 효과를 추정함.¹⁾

<그림 1>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산출 방법



- 건설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2012년 이후 부정적 파급 효과의 추정은 엄밀히 말해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감소함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의 추정임. 향후 건설투자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으므로, 이미 수치가 결정된 2012년 국내 건설수주를 활용해 향후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추정함. 일반적으로 건설수주는 향후 약 5년 동안 건설투자로 인식되므로 동 파급 효과는 2012년 이후 약 5년 동안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효과임.

II. 건설경기 침체 수준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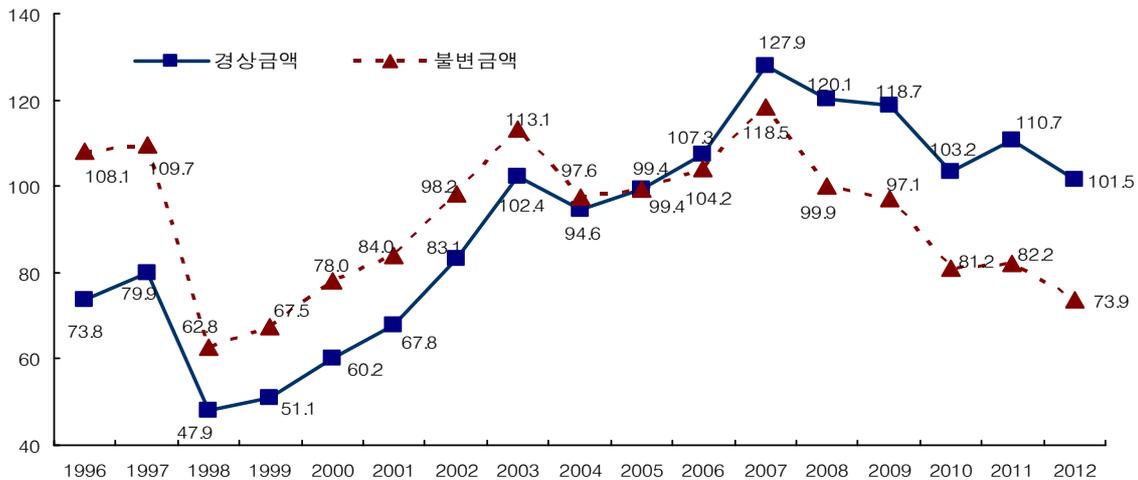
1. 건설수주 침체 수준의 분석2)

□ 2012년 국내 건설 수주액, 2007년 대비 26.4조원 감소한 데다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10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

-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2008년 이후 부진을 지속했음.
 -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국내 건설수주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2010년에 103.2조원까지 감소했음.
 - 2011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회복세(전년 대비 7.2% 증가)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다시 큰 폭(전년 대비 8.3% 감소)으로 감소했음.
- 2012년 국내 건설수주는 101.5조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3%, 금액상으로는 9.2조원이나 급락한 수치임.
- 또한 2012년 국내 건설 수주액 101.5조원은 2005년의 99.4조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이며, 2007년 127.9조원에 비해 무려 26.4조원이나 감소한 수치임.

<그림 2>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주 : 불변 금액은 2005년 기준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하고, 2012년 수주 집계액이 발표된 종합건설업체의 월간 수주액을 기초로 국내 건설수주를 분석함.

-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2005년 기준 불변 금액으로는 73.9조원에 불과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67.5조원에 근접하였음.
 - 결국 국내 건설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10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 수주의 부진이 커다란 영향 미쳐

- 국내 건설수주 추이를 공공 수주와 민간 수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민간 수주 부진이 국내 건설수주 부진에 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2007년 90.8조원을 기록했던 민간 수주는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년 만인 2009년에 60.2조원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12년 다시 민간 수주가 전년 대비 9.0% 감소한 67.4조원을 기록함에 따라 회복세가 크게 꺾였음.
 - 2012년 민간 수주액 67.4조원은 2007년의 90.8조원에 비해 23.4조원이나 감소한 수치여서 2012년 국내 건설수주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음.
- 한편, 공공 수주는 참여정부 시절 줄곧 30조원 내외를 기록했는데, 2007년부터 다소 증가하기 시작했음.
 - 특히,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수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SOC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25% 급증한 영향으로 공공 수주가 역대 최고치인 58.5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후 공공 수주는 감소세를 지속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음.
 - 2012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종료, 발전 공사를 제외한 일반 토목공사 발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34.1조원을 기록했음.
- 그러나 2012년 공공 수주액이 민간 수주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외적으로 공공 수주가 급등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직전 5년(2007~2011년) 동안

공공 수주액 평균이 약 38.4조원 정도였기 때문임.

- 결국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매우 부진했던 것에는 민간 수주가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표 1>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전년 대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거	토목	건축	주택	비주거			
수주 금액	2007	127.9	37.1	21.9	15.2	7.6	7.6	90.8	14.3	76.6	50.6	26.0
	2008	120.1	41.8	23.4	18.5	9.3	9.1	78.2	17.9	60.3	35.3	25.0
	2009	118.7	58.5	42.8	15.7	7.4	8.3	60.2	11.4	48.9	31.7	17.2
	2010	103.2	38.2	25.7	12.5	4.7	7.7	65.0	15.6	49.4	26.9	22.5
	2011	110.7	36.6	21.9	14.7	7.0	7.8	74.1	16.9	57.1	31.7	25.4
	2012	101.5	34.1	18.9	15.2	6.4	8.7	67.4	16.8	50.6	27.8	22.8
증감 률	2007	19.2	25.6	17.6	39.4	47.8	31.8	16.7	46.4	12.5	5.0	30.5
	2008	-6.1	12.8	6.5	22.0	23.5	20.6	-13.9	25.6	-21.2	-30.2	-3.7
	2009	-1.1	39.8	83.2	-15.1	-21.1	-9.0	-23.0	-36.5	-19.0	-10.2	-31.4
	2010	-13.0	-34.6	-39.8	-20.5	-35.8	-6.9	7.9	37.5	1.0	-15.2	31.0
	2011	7.2	-4.2	-15.0	18.1	47.0	0.4	14.0	8.3	15.8	18.1	13.0
	2012	-8.3	-7.0	-13.6	2.9	-7.4	12.2	-9.0	-0.9	-11.4	-12.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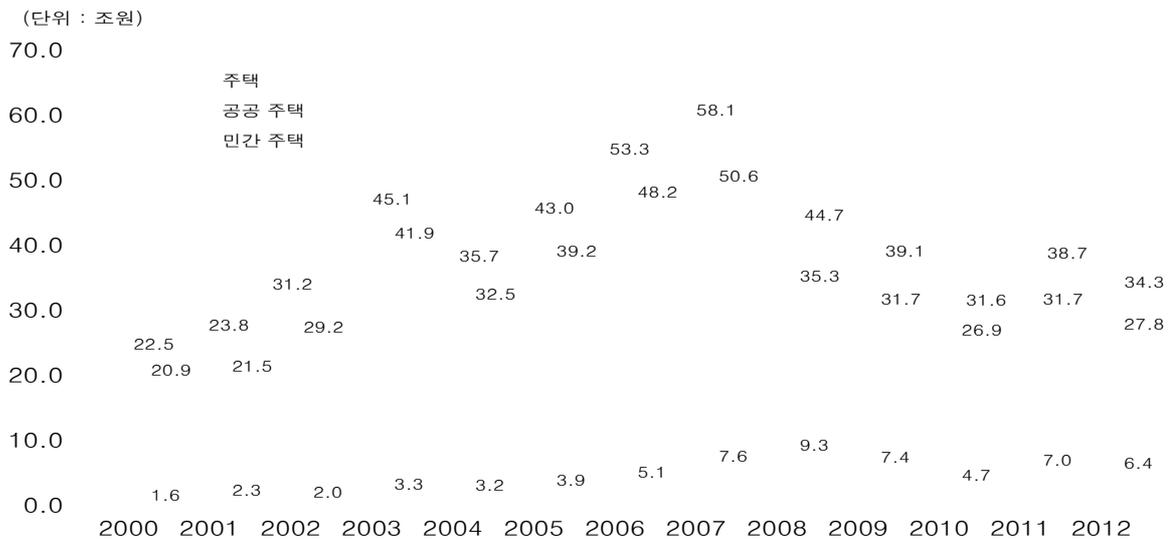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 수주 중에서도 주택 수주가 특히 부진

- 민간 수주의 변화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 민간 수주의 극심한 부진에는 건축 수주, 그 중에서도 주택 수주의 부진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2012년 민간 수주는 토목 수주가 전년 대비 0.9% 감소에 그친 반면, 주택경기 침체의 심화 영향으로 주택 수주는 12.3%나 감소했고, 거시경제 둔화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수주 역시 10.3% 감소했음.
 - 즉, 2012년 민간 수주의 부진에는 토목 수주보다 건축 수주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특히, 2012년 수주액과 직전 5년 동안의 평균 수주액을 비교해보면 민간 건축 수주 중에서도 주택 수주가 더욱 부진했음을 알 수 있음.

- 2007~2011년 동안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 및 주택 수주의 평균 금액은 각각 23.2조원, 35.2조원이었음.
 - 그런데 2012년 수주액은 민간 비주거 건축 수주가 22.8조원, 주택 수주가 27.8조원이었음. 즉, 주택 수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진했음.
 - 결국 2012년 국내 건설수주의 부진에는 민간 수주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 수주의 부진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주택 수주의 변화 추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주택 수주가 감소세를 보인 것에도 민간 주택 수주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해 발주 물량이 조절되는 공공 주택 수주의 경우 2008년 이후에도 큰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반면, 민간 주택 수주는 전체 주택 수주와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감소세를 보였음.

<그림 3> 주택 수주 변화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금년에도 국내 건설수주 부진 지속, 110조원 달성 어려울 듯

- 2013년 초에도 국내 건설수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1월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44.7%나 급감한 4조 3,779억원을 기록함.
 - 이로써 건설수주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의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함.
 - 특히, 1월 수주액 4조 3,779억원은 1월 실적으로는 11년 내 최저치로 매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했고, 2013년 초에도 건설수주의 극심한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2013년 국내 건설수주도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110조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공공 수주는 작년 말 발주 물량의 올해 이월, SOC 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하지만 민간 수주는 하반기 이후에 주택경기와 거시경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70조원대 초반을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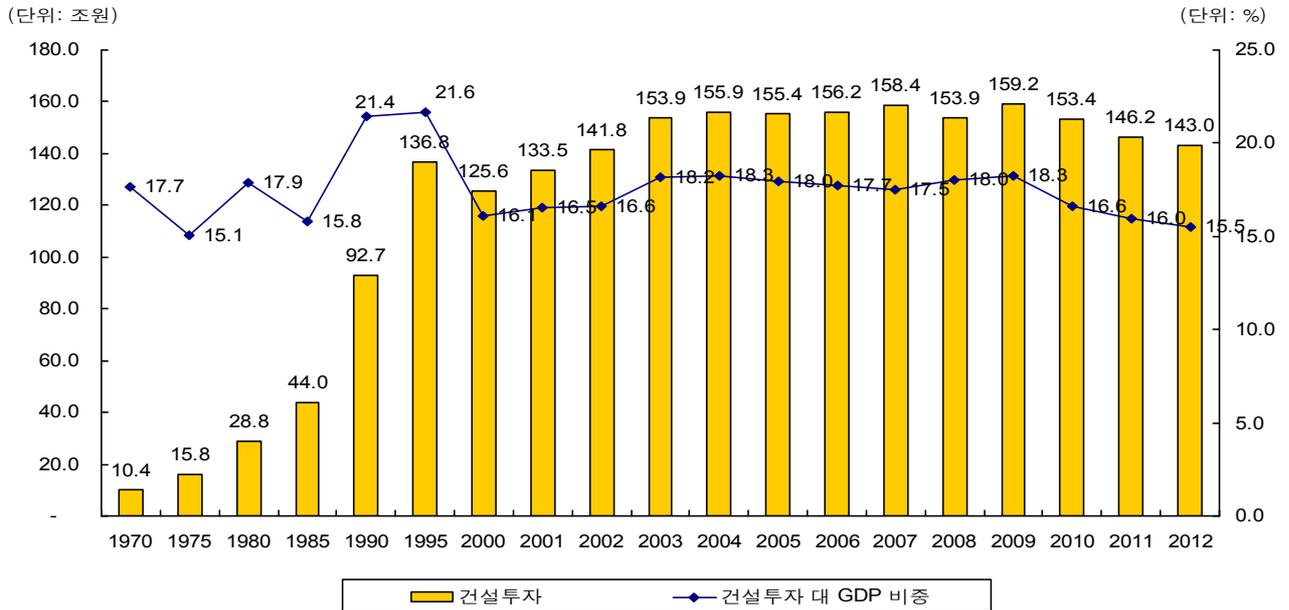
2. 건설투자 침체 수준의 분석³⁾

□ 2010~2012년 동안 최장 기간의 감소세 지속, 2012년 건설 투자액은 2007년 대비 15.5조원 감소

- 국내 건설투자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건설투자는 2003년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거의 성장이 정체됨.

3) 건설투자는 건설 기성과 유사한 개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액뿐만 아니라 분리 발주되고 있는 건설시장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기성액,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공사 기성액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종합 건설업체 수주보다 국내 건설시장 전체의 침체 수준을 분석하는 데 좀 더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 우리나라 건설투자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



주 : 건설투자 규모는 2005년 불변 금액 기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명목 금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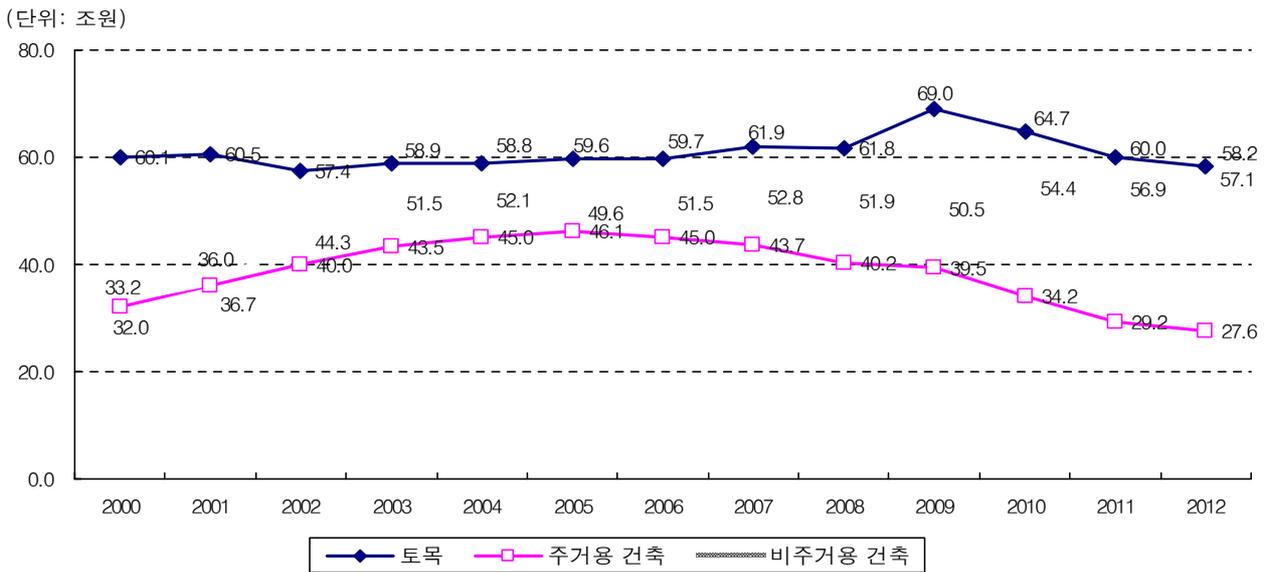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2008년 이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건설경기의 침체가 시작되어 최근 까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됨.
 - 2008년에 전년 대비 2.8% 감소한 건설투자는 2010~2012년 동안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 동안의 감소세와 더불어 건설투자 통계가 발표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의 감소세임.
 - 수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 가량 증가시켰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결과, 불변 금액 기준으로 2012년 건설 투자액은 침체 직전인 2007년의 건설 투자액에 비해 15.5조원(9.8%)이나 급감했음.
 - 또한, 2012년 건설 투자액 143.0조원은 2002년 건설 투자액 141.8조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건설투자의 실질 규모가 10년 이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을 의미함.

□ 주택 투자 부진이 건설투자 부진의 가장 큰 원인

- 2012년 건설투자가 2007년 대비 15.5조원(9.8%) 급감했고, 그 결과 건설투자가 10년 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는 무엇보다 주거용 건축 투자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 2012년 주거용 건축 투자는 2007년 대비 36.8%나 급감했음.

<그림 5> 공종별 건설투자 추이



주 : 2005년 불변 금액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사상 최장기간의 감소세를 지속했음.
- 연간 주거용 건축 투자가 3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한 사례는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8~1981년 동안의 3년, 그리고 외환위기 직전인 1997~2000년 동안의 4년 등 두 번밖에 없었음.
- 주거용 건축 투자가 7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결과, 2012년 주거용 건축 투자의 실질 금액은 27.6조원에 그쳐 1989년의 20.9조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Ⅲ. 건설경기 침체의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

1. 경제성장률 저하 효과 추정

가. 2008~2012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저하 효과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건설경기는 2008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장기간의 침체를 지속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 늘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2009년에 건설투자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음.⁴⁾
 - 2010년부터 건설투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결국 정책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건설투자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함.

① 2008~2012년 건설투자 감소 규모 및 산업 생산액 감소 유발 규모 추정

※ 2008~2012년에 건설경기 침체로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 발생

- 먼저, 건설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 규모를 산출하고, 여기에 건설산업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적인 생산액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건설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 규모는 건설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 건설투자 대비 2008~2012년 동안의 매년 건설투자 감소 규모를 계산하여 도출함.
 - 2005년 불변 금액 기준으로 2008년의 건설투자는 2007년 대비 4.5조원 감소했고,

4)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9조원이 증가했으며, 통상적으로 최소한 예산의 70% 이상은 공사비 예산임을 감안 할 때 2009년 수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 효과는 최소한 4조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2009년 건설 투자액 159.2조원에서 4조원을 차감하면 155.2조원으로 2007년의 158.4조원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임. 즉, 2009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대부분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

2010년 건설투자는 2007년 대비 5.1조원 감소했으며, 2011년 건설투자는 12.2조원, 2012년 건설투자는 15.5조원 감소했음.⁵⁾

- 결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 금액 기준으로 총 37.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건설투자 감소 규모에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⁶⁾를 곱해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 생산액 감소 규모를 추정함.

- 그 결과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총 78.2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평균으로는 19.5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2008~2012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액 감소 효과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건설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비금속 광물 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 기기	도소매	석유 및 석탄 제품	일반 기계	금융 및 보험	운수 및 보관	전력, 가스 및 수도	기타	
건설투자 생산유발 계수	2010년	2.10	1.00	0.23	0.13	0.10	0.09	0.08	0.07	0.06	0.06	0.05	0.04	0.03	0.03	0.14
생산 감소액 추정	2008년	-9.4	-4.5	-1.0	-0.6	-0.4	-0.4	-0.4	-0.3	-0.3	-0.3	-0.2	-0.2	-0.1	-0.1	-0.6
	2010년	-10.6	-5.1	-1.2	-0.7	-0.5	-0.5	-0.4	-0.4	-0.3	-0.3	-0.3	-0.2	-0.2	-0.2	-0.7
	2011년	-25.7	-12.2	-2.8	-1.6	-1.2	-1.1	-1.0	-0.9	-0.7	-0.7	-0.6	-0.5	-0.4	-0.4	-1.7
	2012년	-32.5	-15.5	-3.6	-2.0	-1.5	-1.4	-1.2	-1.1	-0.9	-0.9	-0.8	-0.6	-0.5	-0.5	-2.2
	합계	-78.2	-37.2	-8.6	-4.8	-3.7	-3.4	-3.0	-2.6	-2.2	-2.2	-1.9	-1.5	-1.1	-1.1	-5.2
	연간 평균	-19.5	-9.3	-2.1	-1.2	-0.9	-0.8	-0.7	-0.7	-0.6	-0.6	-0.5	-0.4	-0.3	-0.3	-1.3

주 : 2005년도 불변 금액 기준으로 추정 ;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액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2년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산업 자체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7.2조원으로 가

5) 2009년은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007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2009년 건설투자는 2007년 대비 0.8조원 증가) 합산에서 제외됨.

6)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의 크기를 합산한 값임.

장 크고, 이외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총 41.0조원임.

- 건설산업을 제외하면 제1차 금속제품을 포함한 금속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13.4조원으로 추정돼 가장 타격이 컸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외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6개 산업도 생산액 감소 규모가 2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됨.

② 2008~2012년 GDP 성장률 저하 효과 추정

※ 건설경기 침체하지 않았을 경우 2008~2012년 연평균 GDP 성장률 0.3%p 상승

- 2008~2012년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2.9% 성장에 그치며 경제 성장이 부진하였음.
- 2007~2012년 동안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0.8~0.6%p를 기록함.
 - 과거 1990년대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5.0%p 수준으로 높았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도 0.1~1.0%p 수준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매우 낮아짐.
 - 특히, 2010~2012년 동안은 사상 처음으로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표 3>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추이

구 분	GDP 성장률	GDP 연평균 성장률	건설투자 증가율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2008년	2.3%	2.9%	-2.8%	-0.5%p
2009년	0.3%		3.4%	0.6%p
2010년	6.3%		-3.7%	-0.7%p
2011년	3.7%		-4.7%	-0.8%p
2012년	2.0%		-2.2%	-0.4%p

주 : GDP 연평균 성장률 계산 공식은 (2012년 GDP/2007년 GDP)^(1/5)-1임.

자료 : 한국은행.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경우 2008~2012년 동안 국가 GDP

도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을 것임.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 건설 투자액 감소 규모 37.2조원(2005년 불변 금액 기준)은 2012년 국가 GDP의 약 3.4%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임.
- 만약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2008~2012년 동안 건설투자가 2007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37.2조원의 투자액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2008~2012년 동안 국가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0.3%p 상승한 3.2%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 4>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았을 경우의 GDP 증가율 추정

(단위 : 조원, %)

구분	GDP	건설경기 침체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투자 증가분	건설투자 증가분 반영한 수정 GDP	수정 GDP 증가율	수정 GDP 연평균 증가율
2008년	978.5	4.5	983.0	2.8	3.2%
2009년	981.6	-	981.6	-0.1	
2010년	1,043.7	5.1	1,048.7	6.8	
2011년	1,082.1	12.2	1,094.3	4.3	
2012년	1,104.2	15.5	1,119.7	2.3	

주 : 2005년 불변금액 기준, 건설경기 침체 않았을 경우 건설투자 증가분 = 2007년 건설투자 - 해당 연도 건설투자.
 자료 : 한국은행.

나. 2012년 이후 경제성장 위축 효과 : 2012년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위축 효과

□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 산업 생산액 19.4조원 감소 유발

- 2008~2012년 동안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산업 생산액과 국가 GDP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쳤는데,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9.2조원이나 급감함에 따라, 이 또한 당분간 건설투자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산업 생산액과 국가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012년 국내 건설수주의 전년 대비 감소액 9.2조원은 국내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 전체적으로 총 19.4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추정됨.

- 일반적으로 건축 수주의 경우 대부분 향후 2, 3년 내에 기성으로 인식되어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 수주는 대부분 4, 5년 내에 기성으로 인식돼 건설투자에 반영됨.
- 결국 2012년 국내 건설수주 9.2조원 감소로 인한 국내 전체 산업의 생산액 감소 효과는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⁷⁾

<표 5>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의 전체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건설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도소매	석유 및 석탄제품	일반기계	금융 및 보험	운수 및 보관	전력, 가스 및 수도	기타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2.10	1.00	0.23	0.13	0.10	0.09	0.08	0.07	0.06	0.06	0.05	0.04	0.03	0.03	0.14
생산 감소액 추정(조원)	-19.4	-9.2	-2.1	-1.1	-0.9	-0.8	-0.7	-0.7	-0.6	-0.5	-0.4	-0.4	-0.3	-0.3	-1.3

주 :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의 크기를 합산한 값임. 생산 감소액은 국내 건설수주가 향후 대부분 건설투자로 인식되므로 건설수주 감소액에 건설투자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향후 감소가 예상되는 생산액 19.4조원 중 건설산업 자체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9.2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 외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총 10.2조원임.
- 건설산업을 제외하면 제1차 금속제품을 포함한 금속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2조원으로 추정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 6개 산업도 생산액 감소 규모가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2.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

가. 2008~2012년 일자리 감소 효과

□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았을 경우 2008~2012년 평균 실업률 0.5%p 감소

7) 수주 이후 5년 내 준공하지 못하는 공사가 매우 적고, 준공 시기가 5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공사 진척률이 상당하므로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생산액 감소 효과는 대부분 새로운 정부 5년 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단, 2012년에 수주된 공사 중 일부 공사가 2012년에 착공을 시작해 일부분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9.2조원 감소로 인한 생산액 감소 효과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한 건설투자는 산업 생산액 감소와 국가 GDP 성장률 감소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
- 본 장에서는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 기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함.
 - 앞 장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건설투자 감소 규모에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⁸⁾를 곱하여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직·간접 취업자 감소 규모를 추정함.
 - 그 결과,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평균으로는 4년 동안 매년 12.8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직종별로 살펴볼 때는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75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기능인력이 약 126만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서민임.

<표 6> 직종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2010년	13.7	0.6	1.5	1.9	0.3	1.1	0.2	4.3	1.7	2.1
	2008년	-61,544	-2,793	-6,832	-8,743	-1,295	-4,735	-853	-19,251	-7,806	-9,237
취업 감소 인원(명)	2010년	-69,529	-3,155	-7,718	-9,878	-1,463	-5,350	-964	-21,749	-8,818	-10,435
	2011년	-167,862	-7,617	-18,633	-23,848	-3,531	-12,916	-2,327	-52,508	-21,290	-25,193
	2012년	-212,082	-9,623	-23,542	-30,130	-4,462	-16,318	-2,939	-66,340	-26,898	-31,830
	합계	-511,018	-23,188	-56,724	-72,599	-10,751	-39,319	-7,083	-159,847	-64,812	-76,695
	평균	-127,755	-5,797	-14,181	-18,150	-2,688	-9,830	-1,771	-39,962	-16,203	-19,174

주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8)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 학력별로는 고졸 취업자 수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대졸 취업자 수의 감소 효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학력 및 연령대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단위 : 명)

분야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2008년	-20,285	-28,173	-13,085
2010년	-22,917	-31,829	-14,784
2011년	-55,327	-76,843	-35,692
2012년	-69,902	-97,086	-45,095
계	-168,430	-233,932	-108,656
연간 평균	-42,108	-58,483	-27,164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2007년 수준의 건설 투자가 유지되었을 경우 동 기간 동안의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평균 고용률은 0.3%p 늘었을 것으로 추정됨.⁹⁾

<표 8>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률 및 고용률 추정

구분	경제활동 인구 (천명)	생산가능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 %p)	고용률 (% , %p)	
실제 결과치	2008년	24,347	39,598	23,577	769	3.2	59.5
	2010년	24,748	40,590	23,829	920	3.7	58.7
	2011년	25,099	41,052	24,244	855	3.4	59.1
	2012년	25,501	41,582	24,681	820	3.2	59.4
	연간 평균	24,924	40,706	24,083	841	3.4	59.2
2007년 수준의 건설투자 유지시 추정치	2008년	24,347	39,598	23,639	708	2.9	59.7
	2010년	24,748	40,590	23,899	849	3.4	58.9
	2011년	25,099	41,052	24,412	687	2.7	59.5
	2012년	25,501	41,582	24,893	608	2.4	59.9
	연간 평균	24,924	40,706	24,211	713	2.9	59.5
증감 효과	2008년	-	-	62	-61	-0.3	0.2
	2010년	-	-	70	-71	-0.3	0.2
	2011년	-	-	168	-168	-0.7	0.4
	2012년	-	-	212	-212	-0.8	0.5
	연간 평균	-	-	128	-128	-0.5	0.3

주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자료 : 통계청.

9)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로 최근 몇 년 동안 건설현장의 투입 인력 축소, 외국인 고용 인력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추정된 실업률이나 고용률 증감 효과는 이러한 제도 변화와 기타 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생산액 변화로 인한 각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감 효과만을 감안하여 추정된 것임.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유발된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중 31.8만명은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한 취업자 수 감소 효과로 추정됨.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건설투자 감소 규모 37.2조원에 건설산업의 취업계수¹⁰⁾를 곱하면 총 31.8만명의 취업자 수가 건설산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즉,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 중 62.2%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가 건설산업 내에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¹¹⁾

나. 2012년 이후 일자리 감소 효과 : 2012년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감소 효과

□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향후 취업자 수 12.6만명 감소

- 2012년 국내 건설수주의 전년 대비 감소액 9.2조원은 12만 6,000명의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7로서 건설투자 10억원당 전체 산업에서 13.7명의 취업자를 유발시킴.
 - 건설수주가 거의 대부분 5년 내에 건설투자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부 5년 동안 12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 감소가 우려됨.
- 특히, 직종별로 살펴볼 때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됨.

10) 취업계수는 특정 산업에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의 수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 2010년 건설업 취업계수(8.5)을 활용함.

11) 건설산업 내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건설투자 감소가 가장 주된 원인이나, 최근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2011년 기준 약 5만명 추정) 외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2011년 기준 약 11만명 추정)가 급증해 국내 인력의 일자리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심규범 외 2인, '2012년도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 규모 산정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표 9>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의 향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3.7	0.6	1.5	1.9	0.3	1.1	0.2	4.3	1.7	2.1
취업 감소 인원(명)	-126,182	-5,726	-14,007	-17,926	-2,655	-9,709	-1,749	-39,470	-16,004	-18,938

주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취업자 수가 5만 7,000명 이상 감소하여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됨.

<표 10> 학력 및 연령대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단위 : 명)

전체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126,182	-41,589	-57,763	-26,830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IV.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규모는 200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총 37.2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산업 생산액 감소 유발 효과는 총 78.2조원(연간 평균 19.5조원), 취업자 수 감소 유발 효과는 51.1만명(연간 평균 12.8만명)으로 추정됨.
 - 만약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아서 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2008~2012년 동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3%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실업률은 0.5%p 감소하고, 평균 고용률은 0.3%p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도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6만명 감소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

-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747'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국가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2%까지 하락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대외 악재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었음.
 -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0년 -0.7%p, 2011년 -0.8%p, 2012년 -0.4%p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경제 성장을 저해하였음.

- 연구 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고,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SOC 투자 계획은 연평균 0.5% 감소할 계획이며, 연평균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SOC 분야가 유일함.
 -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향후 당분간 주택경기 침체가 좀 더 지속되고,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달성과 경제 회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임.

-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임.
 - 2010년 기준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비교해보면,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과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높음.
 - 건설산업의 취업유발효과 역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고, 전 산업 평균보다도 높음.

<표 11>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비교

구분	전 산업 평균	건설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전력/가스/수도
생산유발계수	1.9	2.1	2.1	1.7	1.9	1.7	1.5
취업유발계수	12.9	13.7	9.3	16.6	37.3	7.8	2.5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또한 건설산업의 산출물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자본재를 구축하는 것이며,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임. 더욱이 우리나라의 건설 스톡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인구와 국토 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도로 밀도)이 2011년 기준으로 1.51에 불과해 일본(5.52), 미국(3.76), 영국(3.42)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질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함.
 - 도로 혼잡 구간이 증가해 교통혼잡비용도 증가 추세임 [교통혼잡비용(조원) : 1994년 10.0 → 1996년 15.9 → 1999년 17.1 → 2002년 22.1 → 2005년 23.7] .
 - 철도 밀도와 철도 연장 역시 16위와 22위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임.
 - 인구 천명당 주택 수도 2010년 기준 363.8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일본 450.1호(2005년), 영국 438.7호(2009년), 미국 409.8호(2010년)] .

-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규모 공공 건설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2년 간 2,500억 달러 가량 투입된 경기 부양 예산 중 500억 달러 가량이 SOC 분야에 뿌려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임기 동안에도 도로·교량 등 SOC 분야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임.
 - 일본 역시 아베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한 추경예산 10조 3,000억 엔이 포함된 20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에서 도로·터널·교량 등의 개·보수와 항만 정비 등 공공 사업 투자 규모가 5조 2,000억 엔에 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베 정권은 긴급 경제 대책을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을 2% 정도 높이고 6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목표를 세움.
- 따라서 향후 국가 경제성장률의 적정 수준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건설경기 침체 수준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민간 건설시장의 부진, 그 중에서도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임.
 - 민간 건설시장에서 민간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시장은 거시경제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민간 주택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한 4·1대책의 조기 입법화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시경제의 회복 없이 민간 건설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 건설시장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 중기재정계획에서 향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SOC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SOC 투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대내외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을 양호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정부 공약 사항 중 생활/방재형 건설사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공약 사항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